

아담과 그리스도 (로마서 5:12-21)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롬 5:18)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대조를 통해 인류 역사 전체에 미친 두 인물의 결정적 영향을 드러낸다. 아담은 죄와 죽음의 근원이요 대표인 반면,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자 새 인류의 대표이다. 바울은 우선 아담을 통한 죄의 기원과 그 결과를 살핀 뒤, 중간부의 율법 논의를 거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우월성을 세 갈래 병행 논증으로 설명하고, 다시 비교를 완성함으로써 보편적 구원의 범위를 확인하였다.

1. 아담을 통한 죄와 죽음의 시작

12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에 ‘죄’를 전가했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지배권을 획득했다고 진단한다. 창세기 3장의 사건처럼, 아담의 행위는 모든 인간에게 반복·확증되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초래하고 결국 사망이라는 형벌을 집행한다. 아담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 제시된다.

2. 율법과 죄의 관계(13-14절 중간부)

바울은 곧이어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며 아담—그리스도 비교를 잠시 멈춘다. 율법은 죄를 분명히 드러내고 법적 심판의 근거를 제공하지만, 모세 이전에도 죄는 이미 숨은 적대 행위로 작동했다. 이는 아담 시대에도 적용되어, 특정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 해도 죄와 사망이 만연했음을 보여 준다.

3. 은혜·칭의·생명의 우월성(15-17절)

15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은 ‘삼중 병행 논증’을 펼쳐 구원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죄보다 은혜의 우월성(15절): 한 사람의 침범으로 죄가 많아진 반면, 그리스도의 선물로 은혜는 더욱 넘친다. 정죄보다 의롭게 하심의 우월성(16절): 한 사람의 범죄가 정죄를 가져왔지만, 예수의 순종은 의롭다 하심을 가져온다. 죽음보다 생명의 우월성(17절): 사망의 통치 아래 있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은혜-칭의-생명’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자 새 인류의 본질적 특징임을 보여 준다.

4. 비교의 완성: 보편적 멸망과 보편적 구원(18-19절)

18-19절에서 바울은 다시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를 완성한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과 “많은 사람이 한 사람(그리스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히브리식 대구법으로 동일한 ‘보편성’을 드러낸다. 즉, 죄와 멸망이 모든 인류에 미쳤듯이, 의와 구원도 모든 인류에게 유효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5. 율법, 죄, 은혜: 최후의 대비(20-21절)

마지막으로 20-21절은 율법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율법은 죄를 폭로하고 그 세력을 강화하지만, 이를 통해 죄의 심각성이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나타난다. 죄는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한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는 단지 과거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두 원리—죄와 은혜—를 명료히 대조한다. 아담은 죄와 죽음의 “근원적 대표”로,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의 “새 대표”로 제시된다. 율법을 거치는 해설부를 통해 죄의 보편성과 은혜의 초월성이 드러난 뒤, 병행 논증과 보편성 대조로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우월성이 확증된다. 바울이 이처럼 장중하게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킨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죄인으로서의 인류)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을 누리는 인류)를 동시에 보여 주기 위함이다. 결국 이 비교는 인간의 절망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초대하는 복음의 심오한 메시지이다.